

94.10.17

여중고교서 잇단 성폭행

공부하러 일찍등교한 학생 교사위장 남자에 봉변

학교측 피해자 보호내세워 “쉬쉬” 숨겨 계속 발생

최근 서울 도심의 여자중·고등학교에서 아침 일찍 공부하러 나온 여학생들이 잇따라 성폭행당하는 사건이 발생해 여학생 보호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해당 학교가 피해학생 보호를 이유로 경찰 신고는 물론 상부에 보고조차 하지 않은 채 사건 자체를 은폐하는 바람에 동일범의 소행으로 보이는 성폭행이 인접 학교에서까지 일어난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6일 해당 학교와 경찰에 따르면 지난 6월말 서울 S여중에서 학기말 시험공부를 하기 위해 오전 6시30분께 등교한 이 학교 2학년 학생이 교사로 신분을 위장한 30대 중반의 남자에게 성폭행당했

다.

당시 이 여학생은 교실에서 자습을 하고 있던 중 운동복 차림의 남자가 다가와 “새로 온 선생인데 양호실이 지지분하니 청소를 해야겠다”고 해 양호실에 갔다가 성폭행당했다는 것이다.

이어 지난 9월에는 이 학교에서 5백m 가량 떨어진 또다른 S중학교에서도 한 여학생이 아침 일찍 등교했다가 비슷한 수법으로 성폭행을 당했다.

이 학교의 한 교사에 따르면 피해 여학생이 오전 6시께 등교해 자습을 하고 있던 중 자신을 새로 부임한 교사라고 신분을 밝힌 30대 중반의 남자가 “화장실 청소를 하라”고 말한 뒤 화장실로 데리고 가 성폭행했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서울 M여고에서도 중간고사 기간이던 지난 5월말 낮선 남자가 학교에 들어와 시험공부를 위해 아침 일찍 등교해 교실에서 자습을 하던 한 여학생을 화장실로 끌고 가 성폭행하려다 인기척이 나자 달아났다고 학교 관계자들이 말했다.

그러나 이들 학교에서는 사건발생 뒤 적극적인 대책 마련보다는 이를 숨기기에 급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S여중의 한 교사는 “교장이 사건 직후 교무회의에서 단순한 성추행일 뿐이니 소문내지 말라고 교사들에게 함구령을 내렸다”고 말했다. S중 교장은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이와 달리 해당 학교 교사들은

“피해를 본 학생의 보호와 함께 유사사건의 재발 방지가 매우 중요하다”며 “학교쪽이 교육청에 보고해 모든 학교 차원에서 대책 마련을 했더라면 또다른 사건이 일어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들 학교의 관할 경찰서는 “사건발생 사실은 알고 있으나 피해자나 학교측으로부터 신고가 없어 본격적인 수사에는 착수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뒤늦게 이 사실을 안 교육부는 최근 서울시교육청에 진상과 악을 긴급지시하고, 전국 15개 시도 교육청에 “학생들이 너무 이른 시간에 등교하지 않도록 지도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긴급발송했다.

김정곤 권복기 기자